

바닷물 끌어 민물로… 보길도에 내린 ‘드림즈호’ 4000억 단비

국비 70%, 민간 투자 30% 투자 드림즈호 담수 최대 450t 생산 물 부족 섬 지역 생활용수 공급 보길도, ‘지하수 저류댐’으로 버티 섬 지역 광역상수도 설치 시급해

극심한 가뭄에 식수 공급마저 어려운 호남권과 주변 섬 지역에 단비와 같은 선택이 나타났다. ‘드림즈호’, 세계 최초의 한국형 해수담수화 선박이다. 서남해안 주변 섬 3348곳, 유인도 472곳의 지형에 맞게 건조된 선박이 바다에서 끌어온 해수를 담수로 만들어 공급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국비만 3000억~4000억원이 소요될 전망으로 국비 70%, 민간 투자 30%로 추진될 예정이다.

19일 환경부에 따르면 드림즈호는 전남 여수시 대두라도와 완도군 소안도에 담수를 공급하는 데 성공했다. 2018년 4월부터 국비 222억원을 투입해 만든 드림즈호는 담수를 하루 300t 이상, 최



보길도 지하수 저류댐 물을 저수지로 내보내고 있다.

/공동취재단

대 450t까지 생산 가능하다. 물 부족을 겪고 있는 섬 지역에 생활용수를 공급하려는 목적이다. 바로 마셔도 문제가 없어 식수로도 제격이란 평가다.

해수담수화 선박 개발 책임자인 이상호 국민대 교수는 “몇몇 국가에서 바지선 위에 설비를 올리는 방식으로 이동 가능한 해수담수화 플랜트를 만든 적 있지만 드림즈호처럼 자체 엔진으로 자

유롭게 옮겨 다닐 수 있는 해수담수화 선박은 국내 최초”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기후변화로 물 부족이 심각해지는 가운데 물 안보와 물 복지를 해결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며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등에서 관심이 커 수출도 계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호남권 포함 남부 지방 가뭄이 극심한 상황이다. 문제는 가뭄으로 주

변 섬 지역 내 생활용수와 공업용수 공급이 거의 ‘심각’ 단계인데 대부분 호남권이라는 점이다.

실제, 우리나라 최남단 해남 땅끝 마을에서 배로 들어가야 하는 보길도의 경우 긴 가뭄으로 2일 급수, 6일 단수 등 제한급수를 실시 중이다. 각 가구에는 물을 담아두기 위한 파란색 대형 물탱크가 놓여 있었다.

보길도에서 만난 주민 조충연(80) 씨는 “물도 제대로 못 마시고, 세수한 물은 버리지 않고, 여러 번 쓰고, 목욕은 4~5일에 한 번 하는 꼴”이라며 “식수 비상 공급만으로 부족해 주변에서 생수를 보내주고 있다”고 토로했다.

보길도와 노화도 주민들의 유일한 식수원인 보길저수지는 거의 바닥이 드러나 있었다. 저수율은 15.8%로 예전의 절반 수준, 주민들이 한 달 간 쓸 수 있는 양이다.

그나마 보길도에 설치된 ‘지하수 저류댐’으로 주민들은 버티고 있었다.

지하수 저류댐은 가뭄 대응을 위해 차수벽을 세워 지하수 유출을 막는 시설이다. 저장된 지하수는 저수지와 정수장을 거쳐 섬 주민들에게 공급된다.

현재 시험 운영 중인데, 계획량의 절반 수준인 하루 500~600t이 공급되고 있다. 이는 보길저수지 전체 공급량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이영목 한국수자원공사 영·섬사업기획처장은 “지하수 저류댐은 설치보다 지하수, 그리고 인근에 저수지가 있는 책임지를 찾는 게 더 어렵다”며 “섬 지역의 고질적 물 부족을 해결하려면 광역상수도 설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보길도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지하수가 있어 우리는 상황이 나은 편”이라고 말했다. 목욕도, 빨래도 제대로 못 하는 상황에서 비가 더 오지 않으면 제한 급수 기간이 더 늘어날 거라고 했다. 할머니에게 조용히 생수 한 병을 건넸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metroseoul.co.kr

올 농번기 일손부족 해소 공공인력 20% 확대

농식품부, 외국인력 3.8만명 도입 국내 인력공급 인원 352만명 늘려

정부가 올해 농번기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부문 인력 공급을 전년 대비 20% 확대한다. 외국인력도 역대 최대 규모인 3만8000명을 도입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부터 본격화되는 농번기에 대비해 공공부문 인력공급을 대폭 확대하는 등 인력수급 지원대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주요 품목의 농작업 인력수요는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되며, 과수와 노지채소를 중심으로 농번기(4~6월)와 수확기(8~10월)에 연중 수요의 70% 이상이 집중될 전망이다.

우선 국내 인력공급 인원을 352만명(연인원)으로 전년(293만명) 대비 20% 대폭 늘린다. 그간 공공 인력 중개센터가 없던 경기 김포와 여주, 충북 괴산과 보은 등 9개 시·군에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추가해 총 170개소로 늘리고, 올



농촌 농번기.

해 1월 농식품부와 고용부가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른 도시 구직자 모집을 올해 전북과 경북 11개 시·군을 시작으로 내년엔 전국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외국인력의 농업 분야 배정 인원은 역대 최대 규모인 3만8000명으로 전년(2.2만명) 대비 73% 확대했다.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E-9)는 1만4000명이 배정됐고, 계절근로제 외국인 근로자(C-4, E-8)는 121개 시·군에 2만4418명이 배정돼 순차적으로 입국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올해 외국인력 배정을 지난해 12월까지 마무리해 조기 공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 결과 1~2월까지 고용허가제와 계절근로제 외국인 근로자 총 4681명이 입국해 전년 같은 기간(797명)보다 5배 가까이 늘었다. 또 1개월 미만의 단기 고용인력이 필요한 농가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전년 5개소 190명에서 올해 경기 안성과 강원 정선 등 19개소 990명으로 확대한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공정위, 다인건설 하도급대금 62억 지급명령

대금 54억·지연이자 8억 미지급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 19개 업체가 받아야 할 하도급대금 등 62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다인건설에 대금과 지연이자 지급명령을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다인건설은 17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25건의 건설공사를 위탁한 후, 2017년 4월 ~ 2021년 5월까지 각 건설공사의 목적물을 인수했음에도 현재까지 하도급대금 약 54억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인건설은 또 18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일부를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지급하면서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약 8억원을 주지 않았다.

다인건설은 ‘로얄팰리스’라는 브랜

드명으로 오피스텔, 주상복합건물 등을 시공한 건설사다. 2021년 1월 30일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로 인해 토목 건축공사업 등록이 말소됐고, 이후 현재까지 신규 수주 등 영업활동을 중단하고 기존 건설현장 준공을 위한 잔여공사만 수행 중이다.

공정위는 다인건설이 위탁공사 완료 이후에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수급사업자들의 신고 10건을 접수하고 2020년 6월 1일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하도급대금을 제때에 지급받지 못한 19개 수급사업자의 피해가 구제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정위는 이번 시행명령의 이행 여부를 지속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기술보증기금-에너지공단

중소 에너지 절감 전환 투자 활성화 업무협약

기술보증기금과 한국에너지공단이 중소기업들의 에너지 절감과 탄소중립 전환을 돕는다. 19일 기보에 따르면 지난 17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에너지효율화 투자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절감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을 상호 발굴해 탄소가치평가보증을 통해 공단의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 기반의 저금리 대출을 복합지원하는 협약보증을 마련해 지원하기로 했다. /김승호 기자

중진공-금융결제원 중소기업 유동성 추가지원나서

중기벤처 지원기관·금융결제원 전문기관 간 처음 협업 사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금융결제원이 중소·벤처기업 유동성 추가 지원에 나선다.

19일 중진공에 따르면 지난 17일 서울 목동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금융결제원과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중소벤처기업 종합지원기관과 금융결제 전문기관 간 첫 협업 사례다.

중소기업매출채권팩토링은 최대 90일의 단기 유동성 공급 지원사업으로, 중진

공이 판매기업에게 물품 및 용역 제공 대금의 조기 현금화를 지원하고 구매기업으로부터 대금을 회수하는 사업이다.

중진공과 금융결제원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금융권의 팩토링 중복지원 방지체계를 구축하고 기업정보 공유 등을 통해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활성화에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B2B 상거래 정보 연계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정보 연계 ▲B2B 상거래기반 매출채권 업무 고도화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및 기업평가 정보 공유 등에 힘을 모은다.

/김승호 기자

한전형 에너지관리시스템 기술이전 GS건설 공공주택 데이터 프로파일링

한국전력, GS건설(주), KENTECH(한국에너지공과대학)이 ‘커뮤니티 에너지관리시스템 기술개발’ 협력 MOU를 체결했다.

지난 17일 한전아트센터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이경숙 한전 전력솔루션본부장과 김영신 GS건설 RIF.Tech(미래기술연구원)원장, 박진호 KENTECH 부총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한전은 한전형 에너지관리시스템 K-BEMS 3.0 및 MG 플랫폼을 기술이전하고, GS건설은 공동주택 데이터를 프로파일링하는 한편, KENTECH은 대학 캠퍼스내 에너지 수요를 조절할 수 있는 유연성자원을 분석하게 된다.

을 분석하게 된다.

한전은 스마트빌딩에 최적화된 자체 개발 통합운영 솔루션, K-BEMS 3.0을 KENTECH에 기술이전해 교내 모든 건물의 전기, 가스, 열 등 다양한 에너지 사용정보를 실시간 수집, 분석 및 제어함으로써 에너지자립률을 향상시키는 등 에너지자립형 MG 캠퍼스 구현에 노력하고 있다.

이경숙 본부장은 “한전은 KENTECH에서 나아가 나주 에너지밸리에 미래 신사업을 선도하는 개방형 실증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이번 기술개발 협력과 같이 다양한 기업과 연구진이 참여하여 신기술을 실증하고, 혁신적인 사업모델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며 글로벌 에너지 어젠다를 선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허정원 기자 zelkova@